



요약

- 밀레니얼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은퇴자금 축적도 어렵고, 은퇴 후 생존기간도 길어 은퇴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밀레니얼세대가 직면한 환경은 경제성장률은 낮고 자산축적 기회가 적음
 - 취업이 늦춰지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짧아졌고,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임
- 20·30대는 자산축적이나 은퇴준비에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임
 -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자산축적이나 은퇴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부모세대에 비해 위험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의 20·30대가 가상화폐나 밈(Meme)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도 많은 편임
 - 한편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20·30대가 늘어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임
- 밀레니얼세대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채관리와 위험분산 측면에서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나친 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함
 - 은퇴자산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한편 저축여력 부족은 특히 밀레니얼세대에게 은퇴저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은퇴저축 외에 은퇴시점을 늦추어 은퇴 후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노년기 의료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만함



1. 서론

-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소비자·윤리·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등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MZ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함께 부르는 단어임
 - 밀레니얼 세대라는 명칭은 1982년생들이 20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우가 창안함¹⁾
 - 두 세대 간 차이도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최초 모바일기기 보유 연령도 다르며 두 세대의 부모세대가 각각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라는 차이도 있음
- 20대·30대에 해당하는 밀레니얼세대가 직면한 환경은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와 큰 차이가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낮고 자산축적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은 짧고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임
 -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1980년에는 18.6%, 1990년에는 10%였지만, 현재 저축성수신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는 1%에도 미치지 못함
 -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 국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30.9세로 1998년 25.1세, 2008년 27.3세에 비해 상승함²⁾
 - 한편 법정 정년인 60세라도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은 더 낮을 수 있는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연령은 49.7세로 조사되었음³⁾
 - 은퇴자금 부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다시 취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나 근무조건은 이전 직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밀레니얼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은퇴자금 축적은 더 어렵지만 은퇴 후 생존기간도 길어 은퇴자금이 더 필요하므로 이들에게 은퇴준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1970년에 62.3세였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로 증가하여 이전 세대에 비해 은퇴 후 생존기간이 증가하게 될 것임⁴⁾

1) Strauss and Howe(1992), *Generations*, William Morrow and Company, New York

2) 한겨레(2020. 4. 22),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령 30대…외환위기 때보다 6살 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941533.html>

3)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체감 정년과 노후준비 현황」이라는 주제로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몇 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평균은 49.7세였음

4) 통계청 보도자료(2020. 12. 1), “2019년 생명표”

〈표 1〉 국내 주요금리 추이

(단위: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시중은행 예금금리	22.8	18.6	10.0	7.01	3.19	1.05
시중은행 대출금리	24.0	20.0	10.0~12.5	8.55	5.51	2.80
회사채AA-3년만기 금리	-	30.7	16.48	9.35	4.66	2.13

주: 1) 예금금리: 1950~1995년은 1년 이상 정기 예금금리(연말),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 가중평균예금금리(저축성수신)임

2) 대출금리: 1995년 이전은 시중은행의 1년 이내 일반 대출금리,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당좌대출 제외, 2001년 9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제외)임

3) 회사채 AA- 3년만기 금리: 연중평균, 장외거래수익률(3년물)로서 1993년 6월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수익률임

자료: 통계청(2015),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은행 ECOS,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지표」

○ 본고는 밀레니얼세대의 금융행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은퇴준비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함



2. 밀레니얼세대의 금융행태

○ 밀레니얼세대는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산축적이나 은퇴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저축목적이 자녀, 노후대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밀레니얼세대는 부채상환과 자산마련이 가장 중요한 저축목적인 것으로 나타남⁵⁾
 - 다른 조사에서도 밀레니얼세대의 최우선 재무목표는 주택구입 마련과 은퇴자산 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자산 축적이 결혼자금 마련보다 더 중요한 목표로 조사됨⁶⁾
- 선호하는 소비의 종류에 있어서 밀레니얼세대는 기존 세대와 차이를 보였는데 계획적 소비보다는 즐거움을 위한 소비를 선호하고, 여행이나 자기개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⁷⁾

○ 20·30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위험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의 20·30대가 가상화폐나 밈(Meme)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높은 위험도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올해 1월~3월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규투자자 중 63.5%가 20·30대로 조사되었음⁸⁾

5) 이재완(2019. 1), 「밀레니얼의 부상과 가치관 변화」, 『이슈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박영호·정나라(2020. 7)

7) 이재완(2019. 1)

8) 동아일보(2021. 4. 21), “탈출구 찾는 청년들 ‘영끌 베팅’… 가상화폐 1분기 신규투자 63%가 2030”에서 재인용함

- 해외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젊은이들이 밌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⁹⁾
- 밌주식이란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나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얻는 주식을 의미하는데, 레딧(Reddit)을 통해 유명해져 주가가 급등했던 게임스톱이 대표적인 예임

○ 아울러 상당한 금융지식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도 많은 편임

- X세대, 86세대와 밀레니얼세대 간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가 투자에 있어서 자신을 믿는 경향이 강하며 투자 등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밀레니얼세대의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채권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등 간접투자 선호가 하락한 반면, 주식 직접투자에 선호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줌¹¹⁾
-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금융지식과 금융행위 점수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¹²⁾
 - 다만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지,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산출하는 금융태도 점수는 20·30대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음

○ 한편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20·30대가 늘어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임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약 35.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2020년 상반기 기준)¹³⁾
-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늘었으나, 특히 20·30대의 자산 대비 부채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함

〈표 2〉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p)

구분	가구주 연령	2010	2020	차이
총부채/총자산	30세 미만	12.4	32.5	20.1
	30세~40세 미만	19.7	28.4	8.7
	40세~50세 미만	18.9	23.3	4.4
	50세~60세 미만	16.4	19.5	3.1
	60세 이상	10.4	12.4	2.0

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6-18/crypto-meme-stocks-michael-burry-warns-about-mother-of-all-crashes>

10) 주소현 외(2020), 「밀레니얼세대와 X세대, 86세대의 금융상품 보유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3권, 2호

11) 박영호·정나라(2020. 7), 「밀레니얼 세대, 투자인류의 출현」,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46, 미래에셋은퇴연구소

12)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3),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13)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2021. 5. 11), “30대 가계대출 소득보다 2.6배 많다. 지난해에만 24%p 증가”

〈표 2〉 계속

(단위: %, %p)

구분	가구주 연령	2010	2020	차이
금융자산/금융부채	30세 미만	20.3	49.6	29.3
	30세~40세 미만	45.3	70.0	24.7
	40세~50세 미만	52.3	70.3	18.0
	50세~60세 미만	60.4	58.5	-1.9
	60세 이상	41.4	40.5	-1.0

주: 2010년에 가계자산조사(동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가 가계금융조사로 통합되었는데, 2012년에는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고 복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조사함

자료: 「가계금융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3. 은퇴준비 시 추가적 고려사항

- 밀레니얼세대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자산관리를 통해 은퇴자산을 축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나 X세대와는 다른 저금리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다만 부채관리와 위험분산 측면에서 자산축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득흐름 확보나 은퇴 후 비용절감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함
- 먼저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나친 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함¹⁴⁾
 - 2020년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은 약 26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¹⁵⁾
 -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레버리지 활용은 위험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은퇴자산 준비를 위해서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집중하기 보다는 분산투자를,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해야 할 것임
 - SNS나 온라인 매체 활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밀레니얼세대는 쓸림현상이나 눈에 띄는 사례의 발생확률을 과대평가

14) 윤성훈(2021. 6. 21), 「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15)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2021. 5. 11)

하는 가용성 편향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임¹⁶⁾

- 위험수용도, 자산축적 기간, 목표 생활수준 등에 따라 은퇴준비를 위한 자산운용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연령 변화에 따라 투자의 위험도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이외에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개인퇴직연금(IRP)이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¹⁷⁾

○ 한편 저축여력 부족은 특히 밀레니얼세대에게 은퇴저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행태과학적 특성을¹⁸⁾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면 저축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임¹⁹⁾

- 소비자를 자극하기 위한 쇼핑 알림기능을 비활성화함으로써 충동구매나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음
- 외식이나 배달 등 금액은 적지만 빈도가 높은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정해놓은 금액만을 적립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은퇴저축 이외에도 은퇴시점을 늦추어 은퇴 후 필요자금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노년기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만함

- 자신의 취미를 소득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연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미리 준비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제2의 일자리를 미리 계획해 보는 것도 방법임

16) 쏠림현상(Herding)은 탐색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비슷한 집단 구성원의 결정을 모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말함.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은 잘 기억해 낼 수 있는 사건의 발생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얼마나 최근 기억인지, 얼마나 특이한 사건인지, 감정이 개입되었는지 등에 영향을 받음

17)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음.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고,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상품)과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 상품)이 있음;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일반연금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8) 행태경제학은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소들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왜 못하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경제학, 심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로부터 얻어진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행태경제학 대신 행태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19) https://www.ted.com/talks/wendy_de_la_rosa_a_simple_2_step_plan_for_saving_more_money